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존제)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하도낙서의 육도삼략도의 결론

# “先天 後天 다 亡하고 中天運에 들어와야 再生이로다”

선천 후천 망 중천운 재생

### 육도삼략이란

동양철학의 정신문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전 중국 고대의 황제인 복희씨(伏羲氏)와 그 뒤를 이은 문왕씨(文王氏)에 의해 짜인 하도(河圖)와 낙서(洛書)가 근간을 이루고 우리나라 민족종교의 도맥(道脈)은 이 하도낙서를 근거로 한 육도삼략(六韜三略)의 도해(圖解)에 의해 정통성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

육도삼략도(圖)에 의해 우리나라 민족종교의 도맥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략(二略)의 후천운(後天運)인 삼도(三韜)수운 최제우(崔濟愚) 선생이 그 운을 타고나와 '나는 용담(龍潭)이다' 하였고,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제창하였으며 이를 통학이라 하였다.

또한 후천운(後天運)의 사도(四韜) 화운(火雲)으로는 증산 강일순(姜一淳) 선생이 정음에서 나와 통학을 공부하다가 그 후 흡치교의 시조가 되었다. 강일순 선생은 유불선을 연구하며 후천개벽 사상을 전한 인물이다. 그는 또한 자기 화운으로 왔다 하며 '나는 삼리화(三離火)로다' 하였다.

다음은 삼략(三略)의 중천운(中天運)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오도(五韜)인 목운(木運)과 육도(六韜)인 금운(金運)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으니 이 네 분의 운을 '사상지도(四像之圖)'라고 한다.

이것이 천지운행원리 속에 인간을 구원하는 청사진으로서 선천과 후천은 공허한 시대요 중천운의 주인공이 나와서 비로소 결실의 결실임을 완성하게 되어 있다.

### 목운의 박태선과 금운의 조희성이 어떻게 중천운의 주인공이 되는가?



신순이 5지회장이 1등상을 받았다

<b>後天·中天·完成</b>		
後天(姜一淳) 南方 丙丁 二·七 火 南·夏·赤·火雲-63宮 赤帝將軍 朱雀之神		
中天(朴泰善) 東方 甲乙 三·八 木 東·青·春·東-72宮 青帝將軍 青龍之神	完成(中央艾己五十五) 黃土 黃帝將軍 句陣龍蛇 四九·五十五은 金鳩島인 金運이요 (河洛要覽) 金木이 合運에 入于中宮 하니 (三易大經)	中天(曹熙聖) 西方 庚申 四·九 金 金運·秋·白·金運-81宮 白帝將軍 白虎之神
後天(崔濟愚) 北方 壬癸 一·六 水 北·冬·黑·水雲-54宮 黑帝將軍 玄武之神		
“先天·後天 다 亡하고 中天運에 들어와야 再生이로다-河洛要覽”		

격양유록은 위에서 말한 우리나라 민족종교의 도맥 중 중천운에 해당하는 주인공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먼저 도부신인(桃符神人)에 목인(木人)으로 박태선이라는 존재가 출현함을 예언하고 있다. “最好兩弓木人(최호양궁목인)으로 十八術誕生(십팔술탄생)하니 三聖水源三人之水(삼성수원삼인지수) 羊一口(양일구)의 又八(우팔)일세”

최고의 가장 좋은 심승의 목인으로 박태선이 출현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十八卜의 합자(合字)가 박(朴)이요, 三人之水の 합자가 태(泰)요, 羊一口에 八을 더하라고 하니 그 합자가 선(善)이 되니 박태선이라는 성함이 나오는데 그 분이 바로 목운이라는 것이다. 또한 “開關以來初逢運(개벽이래초봉운) 三八木運始皇出(삼팔목운시황출)” 즉 우리나라가 개벽된 이래 처음으로 맞는 좋은 운인데 그것은 3·8목운인 박태선 장로가 처음으로 영적 황제로 출현하였기 때문이라고 농궁가(弄弓歌)에 예언되어 있다.

새(賽)41장에는 중천운의 또 한 분의 주인공인 조희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人生秋收精米端風驅飛(인생추수조미단풍구비) 糟糠風之人(조포풍지인) 弓乙十勝(궁을십승)” 인생을 추수하러 오신 심판자는 糟에서 米를 회오리바람에 날려 보낸 조(曹)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긴자라고 되어 있다. 금운(金運)은 서방 가을을 맡아 인생을 추수하는 심판권을

### 본부제단 3월 활동 시상 5지역, 압도적으로 1등 차지

이승애 지회장, 지역 3등 4지역(운봉수 지역장, 이영애 지회장), 지역 1등 고선희 5지역 42구역장, 구역 2등 5지역 김두식 구역장, 구역 3등 3지역 21구역 안명숙 구역장, 개인 1등 김두식 승사, 개인 2등 신순이 권사, 개인 3등 고선희 권사.

### 3월 시상자 명단

김상욱 신도회장은 시상자들에게 “한 달간 열심히 구세주 하나님에게 충성한 결과이다. 4월 달에도 열심히 충성해 달라”고 말했다.\*

가진 존재이므로 조희성 선생이 육도(六韜)의 4·9 금운으로 오신 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 목운과 금운 두 분이 협력하여 지상 천국을 건설한다

목운 박태선 장로는 금운 조희성 선생을 영적으로 낳아 인류의 구세주로 성도(成道)시킨 영모(靈母)이다. 목운 박태선 장로는 금운 조희성 선생에게 오셔서 합일되어 완성자 정도령으로 출현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승운론(勝運論)에 “金木合運東西(금목합운동서)로서 地上仙國創建(지상선국창건)이라 先出其人後降主(선출기인후강주)로 無事彈琴千年歲(무사탄금천년세)라” 하였고, 즉 “중천운의 금운 조희성 선생과 목운 박태선 장로의 운이 합일되어 지상천국을 창건하는구나. 먼저 출현한 박태선 장로와 나중에 출현한 조희성 선생이 지상천국 건설을 끝내고 할 일이 없어 거문고를 타면서 천 년의 세월을 보내는구나”라는 뜻이다.

중천운의 주인공 목운과 금운이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내용이다.

### 지금은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는 추수의 계절

천지운행도수에 의하면 지금은 계절로는 가을이다. 가을은 알곡과 쪽정이를 갈라 추수하는 계절이다. 사람 농사를 잘 지은 결과는 기쁨과 영생의 축복이 생길 것이고, 사람 농사를 게을리 하여 결실이 잘 안된 사람은 영원토록 불치옥의 형벌을 받는 무서운 때이다.

격양 선생은 중천운의 주인공이 승리제단에 계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이를 잘 몰라 구원선을 안 타고 있다고 글을도가(弓乙圖歌)에서 다음과 같이 안타깝게 외치고 있다. “德兆蒼生(덕조창생) 건지러고 十勝坊舟預備(십승방주예비)하여 萬頃蒼波風浪(만경창파풍랑)속에 救援船(구원선)을 띄웠으니 疑心(의심)말고 속히 타소. (중략) 苦海眾生(고해중생) 빨리오소 一家親戚父母兄弟(일가친척부모형제) 손뭉잡고 같이 오소. 甘露如雨(감로여우) 웅말인가. 太古始皇(태고시황) 꿈만 꾸던 不老草(불로초) 不死藥(불사약)이 승리제단에 있다” 어서 빨리 이곳에 오시어 사람농사를 잘 지어 알곡이 되어 영생의 대복(大福)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중천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32)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가기 전 50% 이루어져야”

구세주 얼굴에서 나가는 그 빛은 은혜의 빛입니다. 죄악을 소멸시키는 빛입니다.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것은 인간 속의 핏속에 있는 죄를 전부 소멸시키고 하나님을 만들어 주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가기 전에 50%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50%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가 그 빛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로 여러분들이 50%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되겠지요?\*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합시다!

### 구도의 길

## 도(道)의 시작은 음란을 끊어야

영생의 도(道)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구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음란이다. 적어도 영생대도(永生大道)를 이루려는 구도자들에게 성적 접촉은 매우 낮은 차원의 음란죄이다. 여기서 논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음란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반인들을 위해 한 가지 밝힐 것이 있다.

음란죄는 자신의 피를 폭폭 썩힌다는 점이다. 이성과 성적 접촉을 가지면 힘이 빠지고, 자고로 색을 밝히는 사람치고 장수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옥의 형벌을 받는 무서운 때이다. 이러한 육적인 음란죄는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생각으로 음란죄를 이기는 것은 쉽지는 않다. 아무리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몽게 구름처럼 생각이 자꾸 피어오른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음란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예부터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 단둘이 침실이나 창고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음란한 생각이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신이 아무리 음란을 이겼다고 해도 상대가 음란을 품으면 오염되어 범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란죄를 지을 환경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공연히 혼자 있어도 음란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는 호흡을 멈추거나 힘든 일을 하라. 예를 들어 산을 뛰어 올라가거나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생각은 이내 사라져 버린다.

셋째,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만 음란죄가 아니다. 이성을 보고 이성이란 생각이 떠오르면 음란죄이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보고 멋지다고 생각하면 음란죄이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순간 음란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하거나 구세주의 얼굴을 마 음속에 짙게 새겨야 한다. 그러면 그 음란한 생각이 없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여 이기게 되면 음란한 생각이 없어진다. 이성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야 한다. 승리제단 신도들은 이러한 고차원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

요즘 세간에 유행하는 구도 프로그램에서는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라고만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과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그 마음은 사라지는 것일까? 혹시 마음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은 생각은 마음을 휘저으면 다시 떠올라온다. 마음에 자제가 아예 없어야 아무런 휘저어도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도를 완성한 극기 승자(克己勝者)가 되는 것이다.\*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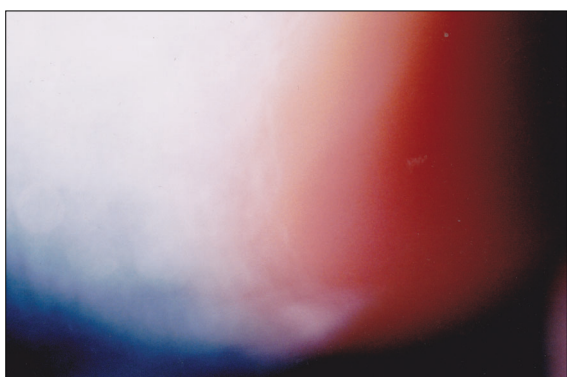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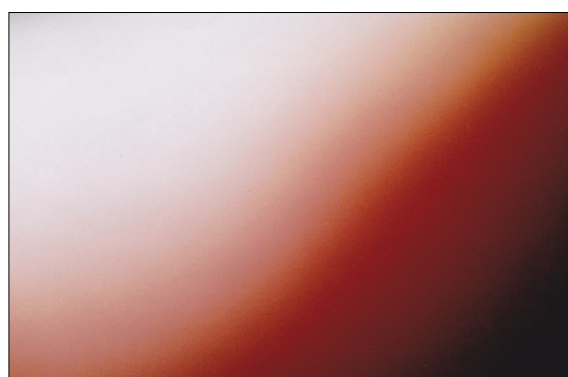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정읍제단 예배(2.25)시 내린 이슬성신/전성남 승사 촬영



정읍제단 예배(2.25)시 내린 이슬성신/전성남 승사 촬영



본부제단 2월 활동 시상식때 내린 이슬성신/이승우 승사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